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ww.kicce.re.kr	보 도 자 료		
	작 성	담당부서	방과후지원연구팀
		담당자	박원순 연구위원(☎ 02-398-7741)
	배 포	담당부서	출판홍보팀(☎ 02-398-7740)
		일 시	2026년 7월 20일(월)
보 도 일 시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생태영유아교육 실천포럼」 성료

< 주 요 내 용 >

-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는 「2026 생태영유아교육 실천포럼」을 부산대학교·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2026년 7월 14일(화)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와 환경 변화 등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생태영유아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현장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생태영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포럼은 현장 진행과 더불어 i-누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어 사전 예약의 조기 마감으로 사전에 참가신청이 어려웠던 경우 온라인으로도 함께 포럼에 참여할 수 있었다.
- 황옥경 소장은 환영사에서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교육 철학으로 생태영유아교육의 가치를 강조하며, 정책과 현장이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생태영유아교육의 현장 확산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실천 사례와 정책적 제안을 기대한다며 포럼 개최 환영의 뜻을 전했다.
- 기조 발제에서는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임재택 이사장이 'K-영유아교육의 미래, 왜 생태영유아교육인가?'를 주제로 미래 K-영유아교육의 핵심 방향으로 생태영유아교육을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제도 전환과 지역 중심의 실천 기반을 마련할 것을 역설하였다.
- 주제발표에서 부산대학교 김은주 교수는 '생태영유아교육의 오늘과 내일: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공공적 확산을 위한 과제'를 발표하며, 생태영유아교육의 의미와 가치, 현장 실천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유보통합과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영유아교육의 공공적 확산 방향과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다.
- 이어서 이수진 원장(충북 국공립 송면어린이집), 강창아 교사(세종 공립단설 두루유치원), 권선임 센터장(부산 해운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지자체 연계형 등 다양한 유형의 생태영유아교육 실천 사례를 발표하며,

생태영유아교육의 현장 적용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실천 경험을 공유하였다.

- 끝으로, 생태영유아교육의 전국적 확산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토론은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장인 권미량 교수(고신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좌장으로, 전선영 교사(경기 조현초병설유치원), 윤수향 장학사(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강효민 학부모(충남 생태유아교육기관 졸업생 학부모), 김희연 교수(세종대학교 교육학과)가 함께 참여하여 생태영유아교육의 전국적 확산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실행 방안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토론에서는 학계와 교육 현장, 학부모의 다양한 관점에서 생태영유아교육의 발전 방향과 실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육아정책연구소는 매년 영유아교육포럼을 개최하여 영유아교육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생태영유아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영유아교육 분야의 주요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현장의 실천 경험과 정책 연구를 연계하여 영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붙임 행사 사진 4매. 끝.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육아정책연구소 방과후지원연구팀 박원순 연구위원(☎ 02-398-7741)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